

지역 소식통

고창군 상하면에도 보건지소 생긴다

그동안 고창군 면단위 중에서 유일하게 보건지소가 없었던 상하면에도 보건지소가 생길 전망이다.

지난 26일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상하면은 고창군 13개면 중 유일하게 보건지소가 없었다. 이에 고창군은 총사업비 14억4,000만원(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8억5,734만원, 군비 5억8,266만원 등)으로 연면적 396㎡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축 예정인 상하면보건지소는 의과, 한의과, 건강증진실 등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간 조성을 중점으로 설계 중이다. 최근에는 상하경로 재에서 보건지소 신축 공사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시간도 가졌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상하면보건지소 신축 공사가 준공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필리핀 계절근로자 입국

정읍시는 지난 25일 농촌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필리핀 계절근로자 20명이 단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국은 올해 초 시와 필리핀 마갈레스시가 체결한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에 따른 결과다. 단체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병원에서 미약검사를 진행하고 농가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지역 내 농가에 배정돼 5개월간 농번기 농촌인력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다. 근로자는 장기 취업비자(E-8)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상반기 532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았고, 현재는 34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4월 중 결혼이민자 가족과 친척 초청 60여명이 입국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벽팜, 정읍에 터 잡는다

정읍시-새벽팜,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신설 투자 협약 체결

총 35억 규모 투자 20명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대한민국 김치품질회 대상 수상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새벽팜이 정읍에 터를 잡는다. 정읍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주)새벽팜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주)새벽팜 김의병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새벽팜은 소성식품 특화농공단지 내 7318.8㎡(2214평) 부

지에 35억을 투자해 20여명을 채용하고, 2025년 제품 생산을 목표로 올해 생산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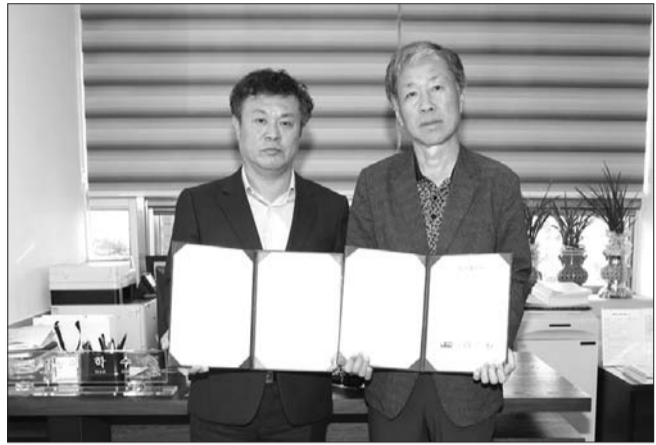
(주)새벽팜은 '참매실 새벽김치', '참매실 묵은지', '잔지네 배추김치' 등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미국 하와이 수출을 확정하는 등 해외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이번 정읍공장 신설로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수출 물량까지 소화할 계획이다. 원부자재는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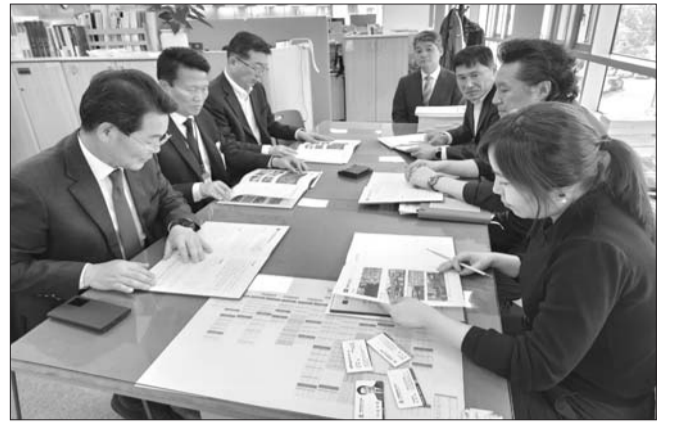
이학수 시장은 "대한민국 김치품질회 대상을 수상한 기업인 (주)새벽팜의 투자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며 "(주)새벽팜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새벽팜 김의병 대표는 "정읍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환영에 감사드린다. 지역 농가와 상생협력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대한민국 김치품질회 대상 수상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새벽팜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및 주요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부안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권익현 군수, 기재부·농식품부 방문 현안 반영 적극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및 주요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어항과를 방문해 △국산 및 전용 비축시설 조성 △뉴시복합타운 조성 △격포 여객선터미널 대체건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산 및 전용 비축시설 조성사업은 새만금 7공구(계화산 연접)에 3만톤 용량의 밀 비축기지를 조성하는 사업

으로, 국산 밀 산업기반 구축과 식량안보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건의했다.

또한 격포 여객선터미널은 시설 노후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현대화된 여객선 터미널 건립을 위한 실시계획비반영을 요청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미래 100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신규사업 국비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하고 정치권과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국가대표브랜드 치유농업 선도도시 부문 대상

치유산업 활성화 속도

정읍시가 지난 25일 엠버서더서울호텔에서 열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2024년 치유농업 선도도시' 부문 대상 타이틀을 거머쥘었다.

국가대표브랜드대상은 매경미디어그룹과 소비자브랜드평가원이 공동으로 조사·평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브랜드 인증제도다. 시는 치유농업 확대보급과 차별화

전략 물론 농업·농촌자원 활용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에는 치유농업팀 신설해 치유농업 관련기관 협의회 개최, 치유농업센터 벤치마킹 등 본격적인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치유농업 전문인력 207명 양성, 찾아가는 마음 치유 플라워트러, 치유농장·콘텐츠 육성, 고위험직군(소방·보건소) 및 유관기관(치매안심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치유프로그램,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예산 40억원을 확보해 치유농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 도입했고, 치유농업클러스터 사업 부지 내 커뮤니티존(치유농업센터, 치유정원 등), 힐링존(생각터, 치유둘레길), 체험존(치유온실, 치유텃밭 등), 케어팜 타운존(요양시설 등)으로 테마별로 나눠 정음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을 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가정의 달 5080 낭만콘서트 개최... 5월 2일 고창문화의전당서

고창군이 2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2024 가정의 달 5080 낭만콘서트' 고창군편을 준비해 시니어 부모 세대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여행 콘서트를 개최한다.

5080 낭만콘서트 고창군편은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에서 주최하고, 문화체

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고창군 후원과 주)한수원 한빛원지력본부,대한노인회고창군지회의 협찬으로 마련됐다.

개그맨 조영구의 사회로 코미디언 전정희, 원일씨의 만담공연과 초대 가수 '나성에 가면' 권성희, '타타타' 김국

환, '간대요글세' 김삼배, '웃으며살시다' 문연주, '장녹수' 전미경과 성악가 안성민의 공연으로 풍성한 추억을 선사한다.

공연은 별도매매없이 자유석이며 가정의달 어르신들을 위하여 무료로 진행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정읍시가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해 농가 소득안정에 나선다.

시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8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손실액을 지원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원대상 품목은 기초농산물 중심으로 가래 등리팍이 큰 양파,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 가늘배추, 가물무, 대파 등이다. 지원면적은 품목당 1000㎡에서 1만㎡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품목별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시장가격'은 올해 품목별 주 출하기 기간별 평균 상품 도매가격을 적용하고 '기준가격'

은 생산비와 유통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우선 5월 31일까지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 등 3개 품목에 대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해당 지역농협 또는 통합마케팅조직(정읍단품미인조합공공사업법인)과 출하 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사업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편적 성격으로 많은 농가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농업인들이 최저가격 보장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